



■ 황금의 달인들이 빛은 콜롬비아의 장신구

이 강 원

나는 2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 30여 년 동안 세계를 떠도는 유목민으로 살았다. 외교관의 아내로 보낸 그 30년 세월 속에는 수많은 인연의 산맥들이 솟아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용기는 전통장신구와 라틴아메리카와의 만남이다. 되돌아보면 장신구와의 만남처럼 라틴아메리카와의 만남도 누군가에 의해 미리 프로그램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각별한 인연이었다. 남편이 외교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 브라질, 마감한 곳이 아르헨티나. 모두 라틴아메리카였다. 더욱이 다른 지역에서는 3년 이상 보낸 곳이 없었던 것에 비해 중남미에서는 10년을 보냈으니 각별할 수밖에 없다.

1978년 아프리카 대륙과의 첫 대면에서 ‘장신구’라는 신세계를 만났다. 그 아름다움에 큰 충격을 받아 그 뒤로 가는 곳마다 그곳의 전통 장신구를 수집했다. 그리고 남미에서 콜럼버스 이전 시대(precolombino) 장신구를 수집하면서 세계의 장신구를 아우르게 되었다.

장신구는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함께한 가장 오래된 인류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3만여 년 전 우리 인류의 조상은 의식주를 해결하자 곧 이어 장신구를 만들어 착용했다. 아름다워 보이려는 본능의 충족, 안정감과 보호감을 보장받는 주술적 힘의 추구, 종족과 지위를 나타내는 신분증, 가내 은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장신구를 만들고 착용했다. 이어서 장인정신의 예술적인 힘까지 불어넣게 되어 장신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역사를 기록함과 동시에 미적세계를 전수하는 역할까지 했다.

장신구는 다른 예술품과는 달리 만든 사람과 착용했던 사람의 혼이 녹아 있다. 그래서 바라보면 가슴에 멍 자국이 남는다. 장신구가 선물한 이런 미(美)의 불도장으로 가슴을 만지면 여기저기 얼얼한 곳이 많다. 이렇게 전통장신구로 인해 받았던 나의 감동을 한국의 관람객에게 공유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유물인 까닭에서였다. 이처럼 2004년 삼청동에 개관한 ‘세계장신구박물관’은 30여 년의 긴 여정과 꿈의 결과다. 무엇보다 다음에 살펴볼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살던 이들이 만든 장신구 속에는 그들의 정신세계와 미적세계가 듬뿍 녹아 있어서 큰 감동을 안겨 준다. 당연히 세계장신구박물관에서 콜롬비아의 금 장신구는 큰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남미에 대한 예찬을 불러오고 있다.

황금의 달인들이 빛은 남미의 장신구

남미에서는 25,000년 전 베링해협을 건너간 인디오들이 정착해 살며 올멕, 마야, 아스텍, 잉카 등의 독특한 문명을 이루고 살았다. 이들은 모두 신체장식에 심오한 형이상학적 관념을 반영시



콜롬비아(시누 문명) 금

켰다. 중미의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서는 연옥(軟玉)을 조각해서 장신구를 만들었고, 페루의 잉카 인들은 많은 양의 금제품을 비롯해 은, 구리, 조개껍질로 만든 장신구를 남겼다. 1492년 이후 스페인이 식민지화 한 뒤에 이 땅에서 방대한 양의 광물을 약탈해 갔다. 금은 11톤, 은은 60톤이 넘을 정도였다. 아마존 지역에

사는 인디오들은 동물의 뼈나 깃털을 써서 이색적인 장신구를 많이 만들었다. 그러나 남미 장신구 문화 가운데서도 콜롬비아에 살고 있었던 여러 인디오 부족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금 장신구가 압권이다. 이 지역에서 금 장신구는 도자기가 쓰이기 3,000년 전인 기원전 1000년경에 이미 존재했는데 금으로 왕관, 펜던트, 귀장식품 등을 제작할 만큼 당시 사람들은 금의 달인이었다.

안데스산맥이 삼지창처럼 갈라진 곳에 있는 콜롬비아는 험한 산세로 인해 10여 개의 부족이 각기 다른 문화를 일구며 살았다. 별 교류 없이 살던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라면 모두 금을 숭배하고 귀하게 여긴 것은 물론 금을 다루는 기법이 뛰어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금이 마술적인 특별한 보호능력을 지닌 것으로 믿었다. 각기 다른 디자인과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금장신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16세기 중반 스페인에 정복될 때까지 계속됐다. 현재 남아 있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펜던트 장신구는 모두 금이며 20센티미터를 넘지 않는다. 콜롬비아의 장신구는 매우 정교하고 세련된 것으로 인간과 동물이 주 모티브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추상적이고 신화에서 비롯한 환상적인 요소도 보여 준다. 금을 마치 종이처럼 얇게 펴고 두드려서 그 위에 수많은 무늬를 만들었다. 그 세련됨이나 뛰어난 테크닉은 20세기의 미술사조로 나타난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미니멀리즘적 요소를 모두 담고 있어서 그 앞서 간 안목과 테크닉에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금과 구리를 합금하는 기술까지 발견했다는 사실. 이들은 툼바가(Tumbaga)를 발견해서 그것으로도 많은 세공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금목걸이를 하면 자연과 우주의 중개자가 된다고 믿어서 즐겨 착용했다. 특히 야생동물 재규어는 땅과 하늘을 매개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어서 영적 지도자인 샤만은 거대한 코걸이



코걸이(재규어), 콜롬비아(칼리마) 금

를 함으로써 재규어를 닮으려 했다. 또 금은 태양의 땀, 은은 달이 흘린 눈물로 믿어서 장신구에 태양과 달의 기운까지 불어넣으려 했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가 했던 모든 금 장식품을 함께 묻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세계에서 제일 큰 금 박물관이 있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엘도라도 의식

스페인 사람들은 신대륙에 발을 들여놓자 금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특히 엘도라도 의식이 치러지던 곳에 엄청난 금이 수장되었을 것으로 믿어서 이를 찾으려 많은 시간과 인명을 투입했다. 한동안 그 도시가 아마존 밀림 깊숙한 곳에 있다고 해서 수많은 탐험대가 떠났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1969년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1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농부가 금 뗏목의 모형을 발견함으로써 구아타비타 호수는 엘도라도 의식이 치러지던 곳으로 확인됐다.

엘도라도 의식은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북동쪽으로 1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정착해 살았던 무이스카(Muisca) 인디오들이 행했던 의식이다. 왕의 후계자가 정해지면 그는 즉위하기 전날 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에 진흙을 묻힌 뒤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신하들과 함께 갈대로 제작한 뗏목을 타고 호수로 저어 나갔다. 호수 한 가운데에 이르면 가져온 금과 에메랄드를 호수에 바치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기원했다. 이 의식이 끝나고 그가 돌아오면 축제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왕이 된다. 이때 인간, 동물, 사회상을 담은 금 조각상들이 사원, 동굴, 신성하게 여기는 호수 등지에 제물로 놓여졌다. 장신구에 묘사된 사람들은 모두 금 장신구나 깃털, 악기 등을 갖고 있다.

주요 인물들의 묘에는 금조각상을 함께 부장(附葬)했다. 신화에 나타날 듯한 재규어,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수호천사, 새 등의



엘도라도 의식 뗏목, 콜롬비아(무이스카) 금

조각상들이었다. 중국의 도사 갈홍(葛洪, 283~343년경)은 “금과 옥(제이드)이 만약 신체의 9번째 구역에 놓인다면, 이는 몸이 썩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묘가 모두 금과 옥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그들은 금과 옥이 가져다줄 영

생을 꿈꿨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엘도라도 의식을 치렀던 지역이 세계최고의 에메랄드 광이 있는 곳이어서 무이스카 인디오들이 금과 함께 많은 양의 에메랄드도 호수에 던졌던 것으로 보인다. 엘도라도를 찾아 헤매던 정복자들은 1545년 안개 자



박물관에 전시된 에메랄드 원석

욱한 안데스 산중에서 말밭굽에 박힌 에메랄드 나석(裸石)을 발견, 추적 끝에 큰 초록색 돌을 목에 건 인디오를 만나 에메랄드 광(鑛)을 발견했다. 에메랄드가 가진 초록의 아름다움은 클레오파트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리처드 버튼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구혼할 때 동원한 것도 바로 콜롬비아 에메랄드였다.□

이강원 - 세계장신구박물관장, 시인